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140, 법인 11, 법인외 20, 민간 어린이집 84, 직장어린이집 51, 부모협동 어린이집 6, 가정어린이집 1천236개소 등 총 2천278개소가 있다.

교육·문화

교육 대학원 4, 대학교 12(본교 4, 대학분교 4, 외국대학분교 4), 전문대학 4, 고등학교 123, 특수학교 7, 중학교 134, 초등학교 243, 유치원 413, 기타학교 10개교 등이 있다.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75점(국보 1, 보물 28, 사적 18, 천연기념물 14, 중요무형문화재 6, 명승 1, 등록문화재 7), 시 지정 문화재 177점(유형문화재 58, 기념물 65, 무형문화재 27, 민속자료 2, 문화재 자료 25) 총 252점이 있다.

관광 관광자원으로는 관광단지 2개소(송도, 강화종합리조트), 관광지 2개소(마니산, 서포리), 관광특구 1개소(월미관광특구), 유원지 3개소(송도, 작약도, 계산) 등이 있고,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568개소, 관광숙박업 88개소, 관광이용시설업 26개소, 국제회의업 14개소, 카지노 1개소, 유원시설업 39개소, 관광편의시설업 178개소가 있다.

문화행사 신년음악회(1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수도 인천(연중), 인천의 근대건축물 종이모형展(1~12월), 인천광역시 사진대전(5월), 화도진축제(5월), 인천광역시서예대전(6월), 인천의 고성 계양산성 특별전(7~11월), '인천, 근대의 시간을 달리다' 기획특별전(8~10월), 인천페타포트음악축제(8월), 2015 대한민국 독서대전(9월), <광복 70주년 특별전-사할린 한인전>(9~12월), 제5회 인천한류관광콘서트(10월), 월미평화축제(10월), 삼랑성역사문화축제(10월),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10월), 부평풍물축제(10월), 소래포구축제(10월), 인천광역시미술대전(10월), 전국제물포사진대전(11월), 송년제야의밤문화관광축제(12월), 인천시립극단 공연, 시립합창단 공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통공연 및 전시(연중), 인천도호부 전통무대 상설화(연중), 일요전통예술 공연 '얼쑤'(연중), 인천도호부대제(10월),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및 작품전시(연중), 박물관 축제(10월)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됐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노경수

<부의장> 박승희, 이용범

<정당별 의원> 새누리당 24, 더불어민주당 11명이 있다.

주요 의정활동 2015년도 회기는 22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28회 제2차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66일), 임시회 6회(62일) 등 총 8회에 걸쳐 128일간 회기를 운영, 조례안 등 3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대 의회에서는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시정의 주요 정책 또는 현안사항 등과 관련 전문가와 시

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등 대안제시를 위해 정책 토론회·공청회 개최 2회, 간담회 개최 20회 및 현장방문을 59회 실시했다. 또한, 진정처리(78건), 의원요구자료(443회 628건)를 처리했다.

시 본청 및 교육청, 시 산하 공사, 공단 등 10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503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업무의 부적절한 집행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 외국도시 의회 등과의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해 의회 위상을 높이는 등 상호 이해의 폭과 이익 증진을 위해 7개국 11개 도시 의회와 우호교류협정 또는 의향서를 교환, 양 도시 의회 간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외국 선진도시 의회와 20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광주광역시

道花 : 철쭉

市鳥 : 비둘기

市木 : 은행나무

캐릭터 : 빛돌이

시청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시장 : 윤장현(尹壯鉉)



개관

연혁 광주에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마한시대로 추측되고 옛 지명은 무진주이다. 삼국시대 백제 군현은 147개소로 광주 지역은 직할 3현을 통치했다. 견훤은 무진주를 점거하고 부근 군현을 빼앗아 완산주에 진군해 도읍을 삼고 후백제왕이라 칭했다.

마한시대에서부터 후삼국까지는 무진주로 불렸으나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33년에 무주를 광주로 개칭해 도독부를 뒀다. 성종의 개혁으로 전남을 해양도라 했으며 도호부를 안남(현재 영암)에 설치했고 광주에는 자사를 뒀다.

조선시대 전라도에는 좌·우도가 있었는데 광주는 좌도에 속했다. 세종 12년 목을 주로 강등해 무진군이라 개칭, 문종 원년에 복칭, 성종 20년 광산현으로 강등, 연산군 7년에 복호됐으며, 이후에도 현으로 강등됐다가 복호되는 사례가 있었다.

1893년 전국이 13도로 조정됨에 따라 전라도가 전라남·북도 분할되면서 전라남도 도청소재지가 됐다. 1910년 광주면, 1931년 광주읍, 1935년 광주부로 일제 강점기를 보냈고 1931년 광주읍으로 승격시켰다가 1935년에는 광주부로 고쳤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광주시로 바뀌어 관할 구역은 214.92km²로 6개 출장소와 45개 동이 구성됐다.

1986년 11월 부산·대구·인천에 이어 네 번째 직할시로 승격되어 행정구역 면적은 215.11km², 3구 72개 동으로 구성, 1988년 1월 송정시와 광산군이 편입됨으로써 면적은 501.20km²로 늘

어나고 4구 83동 9출장소로 구성됐다. 1995년 1월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 1995년 3월 서구에서 남구가 분구, 2015년 12월 말 현재 동·서·남·북·광산구 등 5자치구, 95개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면적·인구 면적은 501.18km²로 전국의 0.5%를 점유하고, 인구는 147만2천199명으로 총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남녀 성비는 남자가 49.6%, 여자가 50.4%이다.

광주광역시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	인구(명)
전 체	501.18	580,427	1,472,199
동 구	49.20	45,860	98,784
서 구	47.79	120,107	305,028
남 구	60.99	87,473	221,318
북 구	120.30	178,735	446,316
광 산 구	222.90	148,252	400,753

재 정

2016년도 예산규모는 4조6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1천281억원, 특별회계가 4천929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41.3%로 광역시 평균 49.6%에 비해 낮으며, 자체수입은 1조4천940억원과 지방채 1천100억원으로 구성된다.

중점 추진사업

시민의 참여와 협치로 진정한 자치 실현 광주복지기준선을 시민과 함께 85회 이상의 모임을 통해 마련했고, 시청 1층 시민홀도 9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기획해 시민숲으로 재탄생시켰다. 또, 실질적인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으로 예산 편성권한을 시민에게 이양했다.

공유문화도시 기반 조성 나눔과 공유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유문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의실, 주차장, 화장실 등 2천100여 개의 공유자원을 발굴했다.

이들 자원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광주 사이트를 개설해 제공했다.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유광주 상징로고를 개발했고 공유문화 시민학교를 운영해 공유문화 활동가를 양성, 민간주도의 공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광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221개 마을사업을 지원했고, 5개 자치구에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마을현장에서 주민을 지원하는 마을코디네이터를 선발했다.

또, 마을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학교'를 운영해 3천200여 명의 주민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마을공동체 문화에 대한

201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합 계	4,060,480	3,128,092	492,977	439,411
지방세	1,269,931	1,269,931	-	-
보통세	1,113,790	1,113,790	-	-
취득세	382,989	382,989	-	-
주민세	9,806	9,806	-	-
자동차세	209,784	209,784	-	-
레저세	16,531	16,531	-	-
담배소비세	73,423	73,423	-	-
지방소비세	192,987	192,987	-	-
지방소득세	228,270	228,270	-	-
목적세	143,841	143,841	-	-
지역자원시설세	26,896	26,896	-	-
지방교육세	116,945	116,945	-	-
지ান연도 수입	12,300	12,300	-	-
세외수입	336,239	89,376	61,052	185,812
경상적 세외수입	269,413	45,336	48,977	175,101
임시적 세외수입	66,826	44,040	12,075	10,711
지방교부세	583,120	566,936	16,184	-
보조금	1,196,191	969,057	207,345	19,790
지방채	110,000	-	-	110,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4,997	232,792	208,395	123,810

2016년도 광주광역시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합 계	4,060,480	3,128,092	492,977	439,411
일반공공행정	573,955	374,309	-	199,646
공공질서 및 안전	154,107	118,900	35,207	-
교육	279,846	279,846	-	-
문화 및 관광	181,479	181,479	-	-
환경보호	316,544	68,844	7,935	239,765
사회복지	1,440,854	1,208,365	232,489	-
보건	60,044	60,044	-	-
농림해양수산	51,505	51,505	-	-
산업·중소기업	135,512	90,780	44,732	-
수송 및 교통	391,421	357,098	34,323	-
국토 및 지역개발	160,997	101,849	59,148	-
과학기술	6,910	6,910	-	-
예비비	20,849	20,849	-	-
기타	286,457	207,314	79,143	-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마을 자랑대회'를 개최해 11개 마을을 '함께 살고 싶은 마을'로 선정했다.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세계적으로 실천·확산 '5·18시계탑'을 30년 만에 제자리로 옮겨 복원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기록물 전시·소장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개관했다.

국제사회에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추진했다. '광주아시아재해 긴급구호협의회'를 구성해 네팔 지진피해 지역에 3차례 광주긴급구호단을 파견해 구호물품을 지원했고, 아시아지역 빈곤국가 의료지원을 위해 2014년 6월 캄보디아에 광주진료소를 개소한 이래 매년 진료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호 네팔광주진료소 건립을 위한 준비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광역교통망 구축 및 대중교통 개선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증편으로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과 연계한 광주송정역과 혁신도시, 신규택지지구 등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5개 노선을 신·증설하고 주변 교통체계와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이용객과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증진했다.

또한 동광주-광산C 확장 협약체결,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착수 등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고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에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전문가, 시민대표로 구성된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TF'를 통해 운송원가 절감, 투명한 운영방식 도입 등 준공영제를 대폭 개선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환경개선과 시내버스 운전원 임단협을 무파업 타결로 이끄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 및 대중교통 개선에 적극 노력했다.

전국 최초 건설공사 설계예고제 시행 2015년 8월 관급공사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설계예고제'를 도입했다. 설계예고제는 공사발주 이전에 세부내용을 사전 공개하고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법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공사 수주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10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해 시설물 규모와 형식, 주요 공법과 자재 등 설계내용 전반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고 해당업체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행정을 구현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0년 광주 비전과 전략 제시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원년으로 2015년 10월 지속가능발전 광주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한 결과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중 4년 연속 가장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대시민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저탄소녹색생활 지자체 평가 우수상, 2015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자체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주변 6개소에 국제행사 경관개선, 도시정원 75개소 조성, 광주천변 우리꽃 11만 포기 식재, 영산강변 코스모스 꽃길 8km 조성, 문화전당 주변 시범 꽃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무와 꽃으로 어우러진 매력있는 정원도시 조성에 노력했다. 푸른길공원이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분야의 복지기본수준을 제시하는 '광주시민복지기준'을 시민과 전문가 등 8천여 명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특별·광역시 최초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고충을 해소했고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재능기부 형태로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사업을 추진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민·관 합동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시 메르스 확진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대규모 국제행사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었고, 정신보건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정신보건체계를 확고하게 갖추고 상호 연계 속에 활발하게 운영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2년 연속 자살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형 청년정책 추진 전국 최초로 청년과를 만들고 2015년 3월 청년위원회 출범과 꿈꾸는 테이블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고통과 어려움을 듣고,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월에 개관한 광주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설립구상 단계부터 입지선정, 공간구상까지 직접 참여한 소통과 교류, 협업의 거점 공간으로, 사회공헌형 청년도전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낙낙한 경제도시 조성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미래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50개의 핵심과제를 발굴했다. 2015년 1월 현대차그룹이 참여하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해 산업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 기술과 정보 제공, 창업 지원, 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 등으로 창조경제 성장을 촉진시켰다. 송정역전 매일시장 리모델링 사업, 발산창조문화마을 조성,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주도형 창조경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5년 11월에 개소한 3D 융합상용화지원센터는 자동차, 가전 등에 융합 혁신기술을 접목시켜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하고 있다.

관내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초경량 고강성 차체새시부품 기술개발, 클린디젤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의 산업도 추진 중에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기술원이 개원했고 한전 주력 R&D사업 10개를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파크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 문화산업 육성 10여 년의 세월에 걸쳐 완공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2015년 11월 25일)에 따라 붐 조성을 위해 '금남로 차없는 거리' 행사 및 '광주예술인 한마당 잔치' 등을 개최했다.

전당 주변 거점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을 연계해 창작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 볼거리·즐거거리·먹거리가 함께하는 예술축제로 진행, 대외적으로 지역관광의 대표브랜드로 정착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KTX 개통에 따른 관광환경의 변화에 맞춰 '아트투어 남행열차', '쌍쌍GO 광주도심 자전거 투어', '문화전당 주변 도심관광 트레일'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문화관광도시 발판을 마련하는데 진력했다.

또, 문화콘텐츠산업 시설을 집적화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 인프라가 될 대형사업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최

중 통과해 광주가 첨단문화산업도시로 재편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21개 종목 143개국 1만7천여 명이 참여한 광주 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광주의 대외신인도와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를 얻었다. 대한민국 국제 종합경기대회 사상 첫 종합우승을 했고, 역대 국제대회 개최 사상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대회로 추진됐고 도심 재생 재건축 방식의 선수촌 건립, 도시 전체가 공연장인 컬처버시아드 실현을 통해 국제스포츠대회를 모형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자치단체 상생협력 가속 광주시는 대구시와 동서화합 분위기 조성 과 정책 공조를 위해 '달빛동맹' 강화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23개 협력사업을 선정해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그동안 관 중심의 교류를 벗어나 민간중심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확산되도록 2015년 5월 민간전문가 중심의 '달빛동맹 민간협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협력과제를 발굴해 민간교류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주와 전라남도 간의 행정사무 및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고,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광주·전남 연구원 통합을 완료했고, 제2남도학숙 건립 등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주요 수상실적

- 행정자치부 주관 '다 가치 그린 서비스 개발 정부3.0브랜드 과제 선정' 최우수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중독 예방 최우수기관' 최우수상
- 고용노동부 주관 '2015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 행정자치부 주관 '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최우수상
- 국민안전처 주관 '전국 긴급구조훈련 평가' 국무총리상
- 국민안전처 주관 '국민안전 119소방정책컨퍼런스' 대통령상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생활권 운영체계 최우수기관 부문' 최우수상
- 고용노동부 주관 '2015 노사문화 유공 부문' 국무총리상

산업

경제지표 지역 내 총생산액(GRP)은 30조9천984억원으로 전국의 2.1%를 차지(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천44만8천원)하고 있으며, GRP를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농업이 0.5%, 광업·제조업이 28.2%, 서비스업 등이 71.3%로 구성된다. 이중 제조업체수는 총 8천278개로 대기업 14개, 중기업 189개, 소기업 8천75개이며, 고용인원은 대기업 2만1천510명, 중기업 1만9천922명, 소기업 4만415명 등 총 8만1천847명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125만5천 명으로 2013년 대비 1만2천 명(0.9%)이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76만3천 명으로 2014년 대비 5천 명(0.6%) 늘었으며 이중 취업자는 74만 명으로 2014년 대비 4천 명인 0.5%가 증가했다. 실업자는 2만3천 명으로 2014년 대비 1천 명이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3.0%로 0.2%p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로 2014년 대비 0.1% 상승했으며, 생활물가지수도 109.4로 2014년 대비 0.6% 상승했으나 전국 도시평균 110.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 은행권 금융기관은 중앙은행 1개, 시중은행 7개(79개 점포), 지방은행 1개(93개 점포), 특수은행 3개(47개 점포), 기타 2개(3개 점포)가 있다.

유통 유통업체는 백화점 3, 대형마트 12, SSM 14, 전문점 3, 쇼핑센터 8, 그 밖의 대규모점포 6개소 등 총 46개소이다.

사회

주택 주택보급률(2014년 12월 말 기준)은 104.1%이며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65%, 단독주택 35%이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에게 소득 및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로·교통 지하철 1호선에 이어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로계획 총 연장은 2천345km로 고속도로 28km, 일반국도 86km, 광역시도 564km, 구도 1천667km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개설률은 71.9%이며 포장률은 100%이다.

2015년 말 현재 차량등록 수는 61만1천280대로서 2014년 대비 4만1천여 대(7.37%)가 증가했다.

상수도 급수시설의 총연장은 3천780km이며, 보급률 및 1일 1인 급수량은 각각 99.6%와 317ℓ이다. 수원시설은 4개 상수원과 4개 정수장, 정 배수지 20개소, 가압장 28개소가 있다.

수질은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호수관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301km를 교체했다.

하수도 하수처리율은 90%이고 1일 하수처리 능력은 73만6천이며, 하수관거설치 연장 4천236km로 관거 보급률은 83.6%이다.

공원 공원지정 현황은 무등산국립공원 75.4km²(광주 47.6km², 전라남도 27.8km²)이고, 도시공원은 606개로서 19.7km²이다. 이 가운데 이미 조성된 공원은 371개소 8.6km²이며,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공원은 235개소 11.1km²이다.

도심디자인 미래 디자인의 방향을 모색하는 2015 국제디자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개선하는 인본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도시의 발전 등 변화에 따른 도시경관 조성 방향제시와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개성있는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2030년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2014.12~16.4) 중이고, 문화전당권 광주 대표거리 조성, 광주의 문화자산이 될 플리조성(3차), 근로자와 지역주민 등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소촌아트팩토리 문화재생사업과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사람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1천683명으로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만6천389명으로 전체인구의 11.3%를 차지하며 등록 장애인 인구는 6만8천6명으로 전체인구의 4.6%이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182개소, 사회복지 이용시설 109개소, 보육시설 1천264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28개소 등이 있다.

보건·위생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2, 병·의원 957, 치과 병·의원 584, 한방병·의원 384, 조산소 1 등 2천3개소이다. 식품 관련업소는 식품접객업 2만979개소, 식품제조 및 가공업 2천660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수입·판매업 2천820개소, 식품판매·운반 2천971개소, 집단급식소 1천434개소 등이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85, 목욕업 234, 이용업 570, 미용업 4천61개소, 세탁업 1천135, 위생관리용역업 410개소 등 총 7천779개소가 있다.

소 방 화재발생은 모두 1천6건으로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0.6%, 전기적 요인이 21.8%, 기계적 요인 5.9%, 방화·방화 의심 2.6% 순으로 발생했으며, 장소별로는 비주거용건물 36.2%, 주거용건물 33.1%, 자동차 9.6%, 임야 3.5% 순으로 발생했다.

119구조활동 출동건수는 1만157건으로 구조건수는 9천78건, 구조인원은 3천641명, 119구급활동 출동건수는 6만3천198건으로 이송건수는 4만6천401건, 이송인원은 4만7천597명이다. 119 생활안전 출동건수는 6천442건으로 생활밀착형 구조활동 5천40건, 민생지원활동 1천402건이었다.

교육 · 문화

교육 2015년 말 현재 학교 수는 총 332개로 초등학교 153개, 중학교 89개, 고등학교 67개, 특수학교 5개, 대학(교)18개이며, 학생 수는 33만천223명이다.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개(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보물 8개(정지장군 함상, 자산동 5층 석탑 등)와 사적지 2개(충효동 도요지, 신창동 유적), 명승 1개(광주환벽당 일원), 천연기념물 2개(무등산주상절리대, 광주충효동왕버들군), 중요무형문화재 1개, 중요민속문화재 3개이며, 등록문화재 13건, 지방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9개, 무형문화재 23개, 기념물 26개, 민속 문화재 7개, 문화재 자료 30개 등 총 146개 이다.

문화·예술 도서관 21, 박물관 10, 미술관 12, 화랑 52, 공연장 47, 영화상영관 16개소에 스크린수 111개소 및 지방문화원 5, 문화의 집 5개소 등이며, 문화예술단체는 103개이다. 공공도서관 30개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주민일착형 생활공간으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461개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행사 정월대보름 고싸움놀이(2월), 5월음악회(5월), G-POP 페스티벌(5월), 광주미술대전(6월),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7월), 임방울국악제(9월), 광주세계아리랑축전(9월), 국

제아트페어(9월), 정울성축제(8,11월), 광주합창제(10월), 한국화대전(12월)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있다.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시설을 집적화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 인프라가 될 대형사업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최종 통과해 광주가 첨단문화산업도시로 재편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공공체육시설 종합경기장 2, 야구장 6, 축구장 19, 수영장 10, 실내체육관 18, 승마장 1, 양궁장 2, 국궁장 3, 빙상장 1, 씨름장 1, 골프연습장 2, 테니스장 17, 롤러스케이팅장 2, 전천후게이트볼장 10개소이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양궁장, 국제테니스장, 보라매축구공원 등 8개 경기장을 신·증축 중이다.

국제교류 미국 샌안토니오, 타이완 타이안, 중국 광저우·장치시, 인도네시아 메단, 일본 센다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 장〉 조영표

〈부의장〉 문태환, 김동찬

〈정당별 의석〉 더불어민주당 20명, 무소속 1명이다.

의회운영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등 총 131일간의 회기동안 시민의 권익과 광주발전을 위한 조례안·결의안·동의안 등 모두 3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68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철저한 감시와 견제기능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2015광주하계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호남선 KTX 요금인하 및 증편 건의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민생 의정 현장방문 28회, 진정서 41건 처리, 의정모니터단 44명 운영 등 민생 현장의 문제점 해결에 힘쓰는 등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및 사업의 원안 추진,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해소,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열린 의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장면을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하고, 수화통역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쉽고 빠르게 의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언론매체에 주요 의정 활동사항을 적기에 제공했다. 또한 의회소식지 1만2천 부 발간, 안내책자 3천 부 발간, 의정자료집 발간, 모의의회 5회 개최 등 시민과의 소통과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해,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구축했다.

정책 의정 지역한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26회 개최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입법·법률 고문 운영, 입법·정책 동향 발간, 실용적인 정책대안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의원들의 입법·정책입안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기능을 활성화했다.

대전광역시

道花 : 백목련 **市鳥** : 까치

市木 : 소나무 **캐릭터** : 한꿈이

시청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시장 : 권선택(權善宅)

개 관

연혁 대전은 상고시대 마한의 변방에 속했다가 백제시대에 우술군, 통일신라시대에는 비풍군으로 불렸으며 고려시대 들어 회덕현, 진잠현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 회덕군, 진잠군이 됐다가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대전역이 설치되어 점차 일본인 거류민이 이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일제치하인 1914년 3월 회덕군, 진잠군과 공주군 일부가 합쳐져 대전군 대전면이 설치된 후 1931년 4월 대전읍으로 승격됐고, 1932년 10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됐다.

1935년 10월 대전부로 승격됐다가 광복 후인 1949년 8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대전시로 개칭됐다.

1952년 4월 최초로 지방의원 22명이 선출됐으며, 1963년 1월 대덕군 회덕면 일부와 유천면 전역을 편입, 시세를 확장했고 1971년 7월 1일 출장소제를 도입, 동·서·중·북부 출장소 등 4개 출장소를 뒀다.

1977년 9월 1일 구제를 도입해 동구와 중구를 뒀고,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확대로 유성 등 광대한 지역이 편입돼 유성출장소를 뒀으며, 1988년 1월 1일 서구를 신설해 3개 구가 됐다.

1989년 1월 1일 대덕군 지역을 편입시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유성구와 대덕구를 신설해 5개 구로 재편됐다. 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1995년 1월 1일 다른 직할시와 함께 광역시로 개칭됐다.

1999년 9월 정부대전청사가 개청되어 제2의 행정수도시대를 맞이했고, 2000년 1월 1일 시청사를 중구 대흥동에서 서구 둔산동으로 이전해 둔산시대의 막을 열었다.

2005년에는 대덕연구개발 특구 출범과 함께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트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결정 등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비약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으며, 2007년도 4월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완전 개통됐다.

2009년도에는 흥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35년 만에 철거됐고, 5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됐으며, 10월 국제우주대회에는 72개국 4천 명(외국인 2천200명)의 우주전문가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1년도에는 세종시 원안추진이 확정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신동·둔곡 지구가 선정됐다.

2012년도에는 세종시가 공식 출범했고, 충남도청이 중구 대흥동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충청권광역철도와 함께 철도중심의 광역교통망 형성에 한발 다가섰다. 5월에 개최된 대전세계조리사대회에는 42만 명이 관람했고, 처음 개최된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에는 18개국 52개 와이너리 등 117개 와인협회와 단체가 참가, 35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했다.

2013년도에는 창조경제 전진기지 공식화, 과학벨트 정상추진, 엑스포 재창조 방향 정립 등 대전의 미래발전 토대를 마련했고, 세종시 2단계 이전, 충청권광역행정본부 추진 등 충청권 협력을 강화했다.

2014년도에는 민선6기 출범으로 시민행복위원회, 직소민원 현장시장실, 명예시장제 운영 등 경청과 화합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통합을 실현해 대전을 살맛나게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도에는 시민중심, 경청, 통합의 기초 아래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타통과,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공,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 누적된 현안사업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고, APCS,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등을 유치했다.

면적·인구 2015년 말 현재 총면적은 538,99km²로 유성구가 176km²로 가장 크고, 동구가 136.7km², 서구 95.5km², 대덕구 68.69km², 중구 62.1km² 순이다. 총 인구는 59만7천8가구에 153만5천191명으로 집계됐다.

*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법정동	행정동	통	반
합 계	538.99	177	79	2,469	13,892
동 구	136.70	45	16	377	2,036
중 구	62.10	26	17	406	2,342
서 구	95.50	27	23	776	4,560
유성구	176.00	53	11	557	3,106
대덕구	68.69	26	12	353	1,848

재 정

2016년도 시 분청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조8천7억원과 특별회계 1조540억원으로 총 3조8천547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조2천540억원, 세외수입 745억원 등 자체수입이 1조3천285억원이며, 지방교부세 4천900억원, 국고보조금 8천221억원 등 의존수입이 1조3천121억원, 지방채 18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6.8%이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천90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천41억원, 교육분야에 2천769억원, 문화 및 관광에 1천670억원, 환경보호 662억원, 사회복지 1조217억원, 보건 519억원, 농림해양수산 338억원, 산업·중소기업 563억원, 수송 및 교통 2천390억원, 국도 및 지역개발 1천391억원,